

numbers 제 35호



주요 내용

2020. 02.21

1.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의 고독 지수, 78점!
2.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대한민국 트렌드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의 고독 지수, 78점!

요즘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이 늘어난다고 한다. 정신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자살의 제 1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넘버스] 16호 참조). 또 2018년 고독사는 2,447명으로 6년 새 2배 증가했다. 정신병과 고독사의 중요한 원인이 '외로움'이라고 한다. 외로움은 정신병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호주 퀸즐랜드대와 호주국립대학 연구팀은 '외로움은 육체적 암 수준으로 간주될 정도로 위험한 "사회적 암"'이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 행동에 대해서는 위험 예측을 하고 있는 반면, 외로움 등 사회적 요인에 대한 위험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외로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주목한 영국 정부는 2018년 1월 '외로움부'라는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임명했다. 그만큼 외로움이 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외로움은 사회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넘버스] 35호에서는 **외로움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 보고 그것이 교회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의 고독 지수 78점”

-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질문했을 때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인 6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 2018년,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는 심리학자 317명에게 현재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독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심리학자들이 매긴 점수는 100점 만점에 78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심리학자들은 한국인의 외로움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그림] 나는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다(동의율/4점 척도) (%)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 '2019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19. 5)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그림] 고독 지수(심리학자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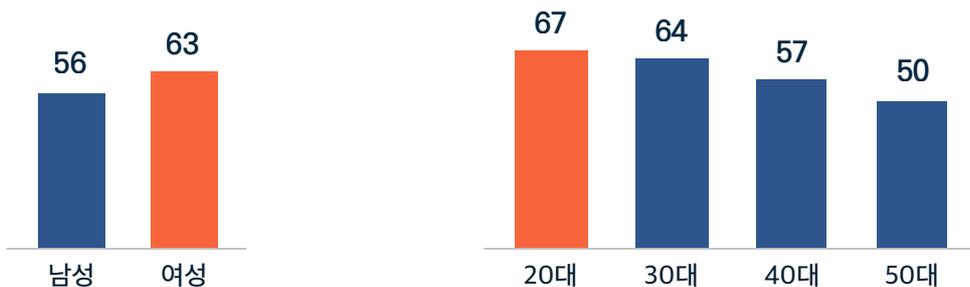
*자료출처 : 한국임상심리학회, '대한민국 고독지수 조사', (2018. 4)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 소속 심리학자 317명) 연합뉴스문, '한국인 외로움 커진다...고독지수 78점 달해', (2018.04.02).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2060600017>

2

외로움, 여성과 20대가 가장 많이 겪는다

- 여성(63%)이 남성(56%)보다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 한편 외로움과 거리가 멀 것 같은 20대(67%)와 30대(64%)의 젊은 세대가 기성 세대보다 일상에서 외로움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림] 나는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다(동의율/4 점 척도, 성별/연령별)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 '2019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19. 5),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3 저소득자, 외로움이 더 크다

- 외로움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월 평균 소득 400만 원을 기점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 즉,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 안되는 경우에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63%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4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55%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

[그림] 나는 평소 일상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다(동의율/4점척도) - 월 평균 소득 (%)



*자료출처 : 트렌드미터, '2019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19. 5),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외로움의 원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0%

- 흔히들 외로움은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37%)나 '그냥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31%)와 같이 주변 지인과의 단절에서 느끼는 개인적 감정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 그러나 사실 외로움은 삶의 형편과 같은 사회적 요인 때문에도 많이 생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40%)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이 홀로 험한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낄'(31%)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30%)될 때 갖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홀로 뒤쳐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낀다.

[그림] 평소 일상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외로움을 느끼는 응답자, 상위 6위, 복수 응답) (%)



*자료출처 : 트렌드미터, '2019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19. 5),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4 외로움, '재기 불가능한 사회'가 근원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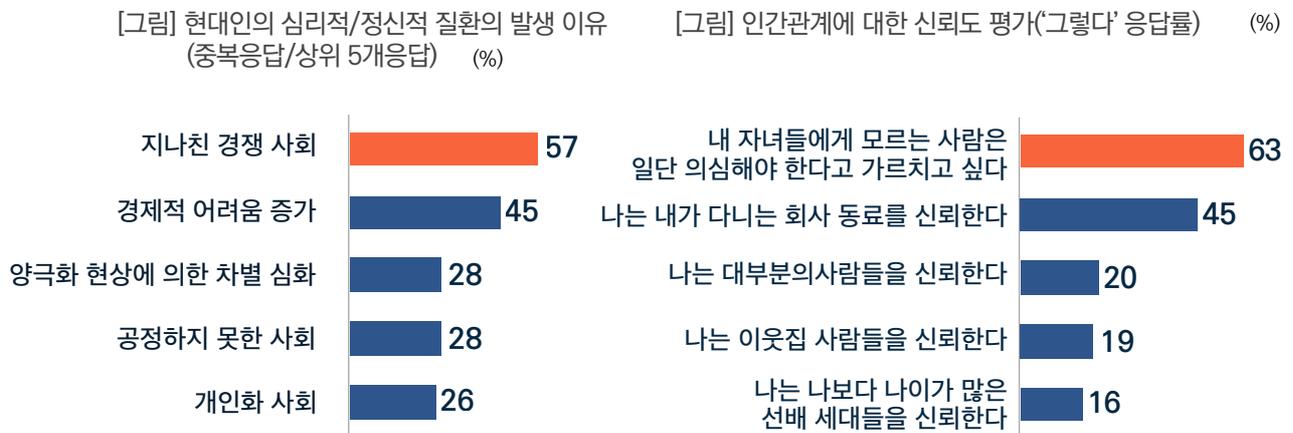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면이 외로움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서'(76%), '한번 낙오하면 버텨내기 어려우며'(78%), '재기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회'(75%)라고 인식한다.
-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오르기 어려운 절벽과 같은 우리 사회가 외로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 '2019 외로움 관련 인식 조사', (2019. 5),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5 타인은 경쟁의 대상이므로 '나는 외롭다'

- 경쟁에서 탈락되어 다시 재기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타인이 협력과 연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고독감이 깊어지고 심지어 정신적 질환의 제 1원인이 되기도 한다(57%).
- 경쟁 상대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된다. 모르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며(63%), 이웃 심지어 가까운 선배조차도 더 믿을 수 없다(이웃 19%, 선배 16%).
- 타인에 대한 경쟁 의식과 불신은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증폭하고 있다.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 '현대인의 정신건강 관련 조사', (2019. 5),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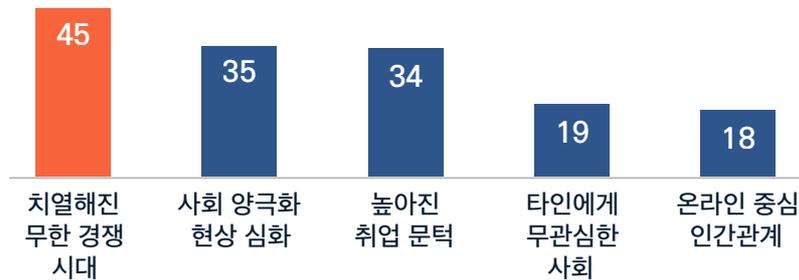
*자료출처 : 트렌드모니터, '2020 사회적 신뢰 관련 인식 조사', (2020.2) (전국, 만 19~59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6

‘치열해진 무한 경쟁’은 20대 조차 외롭게 하고 있다

- 20대가 외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35%) 속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34%)에 부딪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겨내야 한다(45%)는 절박감과 낮은 자신감이 20대를 외롭게 하고 있다.
- 치열한 경쟁 사회에 혼자 서 있다는 외로움은 청년들이 이 땅을 ‘헬 조선’으로 자조적으로 부르게 하고 있다.

[그림] 20대가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20대 대상 고독감을 느끼는 응답자,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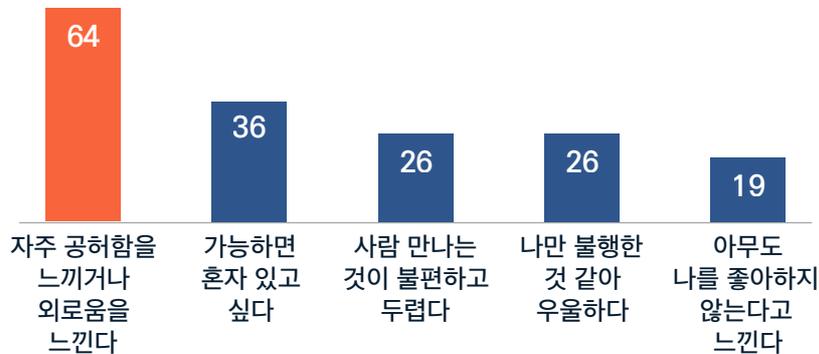


*자료출처 : 잡코리아 알바몬, '청년고독자수 조사(2018. 7),(20대 2,613명, 온라인 조사, 2018.07)
한겨레신문 인터넷(2019년 12월 21)일에서 재 인용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79032>

● 외로움이 외로움을 더 가중한다

- 외로움을 겪는 청년들은 자주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64%).
- 청년들은 이러한 외로움과 공허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나만 불행하다’(26%)고 한탄하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19%)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이다.
- 이런 자책감은 청년들을 더 위축시키고 고립시킨다.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36%), ‘사람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다’(26%). 그래서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그림] 20대가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20대 대상 고독감을 느끼는 응답자,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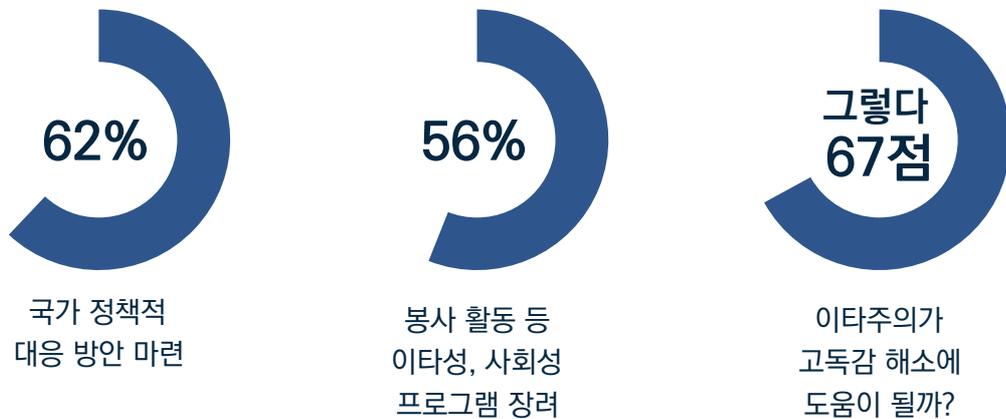
*자료출처 : 잡코리아 알바몬, '청년고독자수 조사(2018. 7),(20대 2,613명, 온라인 조사, 2018.07).
한겨레신문, '외로움은 새 사회적 질병...남몰래 외로운 젊은이들', (2019.12.2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

7

외로움 해결하는 사회적 방안, 봉사 활동 등 이타적 활동 장려 56%

- 국민들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심리학자들의 62%는 ‘국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외로움 해결 방안으로 국민들의 봉사 활동 등 사회성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에 이른다.
- 또한 심리학자들은 이와같은 ‘이타주의가 외로움 해소에 도움된다’에 높게 응답하였다.

[그림] 고독감으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심리학자 대상) (%)



*자료출처 : 한국임상심리학회, '대한민국 고독지수 조사', (2018. 4),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 소속 심리학자 317명)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2060600017>

8 시사점

우리는 전통적으로 '외로움' 을 그 사람의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내향적이고 친구가 적거나 남과 교류가 적은 사람을 외롭다고 보았다. 찾아 오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으면 외로운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 외로움은 좀 다르다. 외로움이 개인적 특성에서 오는 것 외에 사회적 조건에서도 생긴다는 것이다. 이게 더 심각하다. 무한 경쟁의 시대, 한번 낙오하면 재기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토머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옆의 동료는 협력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다. 친구가 불행을 겪으면 마음 아파하지만 곧 치열한 자신의 삶에 몰두하느라 잊어버린다. 이런 사회에서는 각자의 외로움이 더 커진다. 또 경쟁사회에서는 나를 남과 비교하게 된다. 남과 비교하면 결국은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작은 실태도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초라함과 실패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더 위축된다. 이 위축은 더 큰 외로움을 불러온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는 교회가 외로움에 처해 있을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 독거 노인의 이웃이 되어 주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참사나 불행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되는 존재가 있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이 스스로 고귀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도 외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될 때 사회적 외로움을 감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들은 여러모로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 활동에 외로운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키워주고, 자신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 자존감 회복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외로움이 줄어들어 더 건강해지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밀레니얼 직장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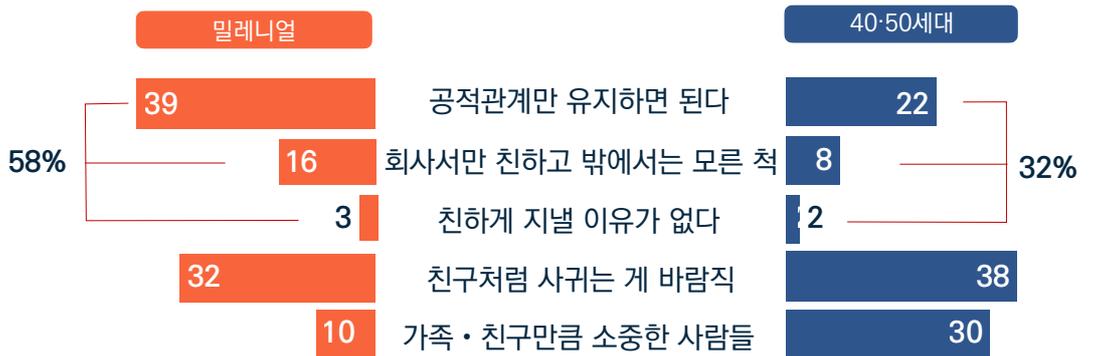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밀레니얼 세대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로 현재 20~30대 연령층을 일컫는데, 최근 매일경제신문에서 밀레니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는데, [넘버즈]에서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1 밀레니얼 직장인, '회사 동료는 공적 관계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58%

- 밀레니얼 직장인에게 회사 동료 인식에 관해 묻은 결과, 회사 동료를 '공적인 관계' 39%, '회사서만 아는 척, 밖에서는 모른 척' 16%, '친하게 지낼 이유 없다' 3% 등 5명 중 3명 가까이(58%)가 공적인 관계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40·50대는 '친구 관계'(38%), '가족·친구만큼 소중한 사람'(30%)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밀레니얼 대비 회사 동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

[그림] 회사 동료에 대한 인식(밀레니얼 세대 vs 40·50 세대)



*자료 출처 :매일경제, 한국리서치, '밀레니얼 직장인 리포트, 퇴근 후 한잔 부장님 소동... 낯엔 뭐하고 밀레니얼엔 두통', 2019.11.08. (100인 이상 기업 다니는 20세 이상 회사원, 1558명), <https://www.mk.co.kr/news/home/view/2019/11/907098/>

● 밀레니얼 직장인, 회사 생활 최우선 가치 '나를 위한 투자'

- 밀레니얼 직장인이 회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 가치로 두는 것으로 '나를 위한 투자 가치'로 꼽은 반면, 40대는 '월급', 50대 이상은 '자부심'으로 응답하여 연령 간 인식 차이가 큼

[그림] 회사 생활 최우선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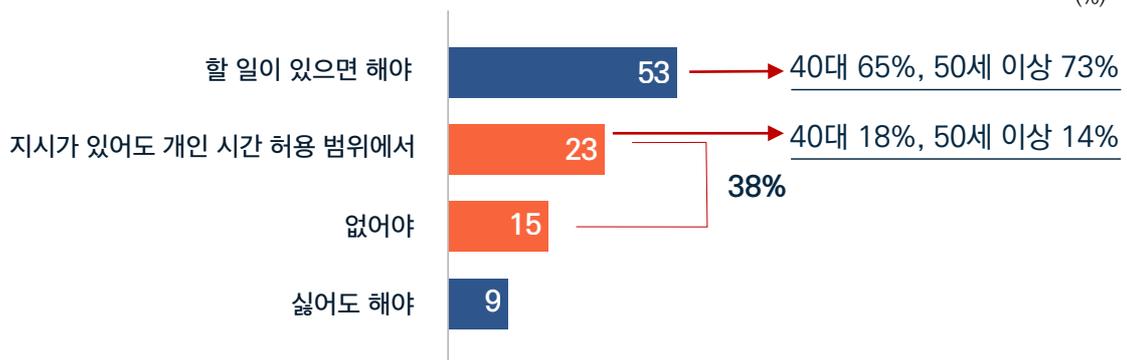


*자료 출처 :매일경제, 한국리서치, '밀레니얼 직장인 리포트, 아군 시키면 난리라는 부장의 편견, 신입사원은 억울하죠', 2019.11.03. (100인 이상 기업 다니는 20세 이상 회사원, 1558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1/902814/>

● 밀레니얼 직장인, 시간 외 근무에 대해 부정적 인식 38%

- 밀레니얼 직장인들은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지시가 있어도 개인 시간 허용 범위내에서’ 23%, ‘없어야’ 15% 등 부정적 인식이 38%로 5명 중 2명 정도로 나타남
- 반면 ‘할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순응적 태도는 선배 직장인(40대 65%, 50세 이상 73%)보다 밀레니얼 세대(53%)가 훨씬 낮음

[그림]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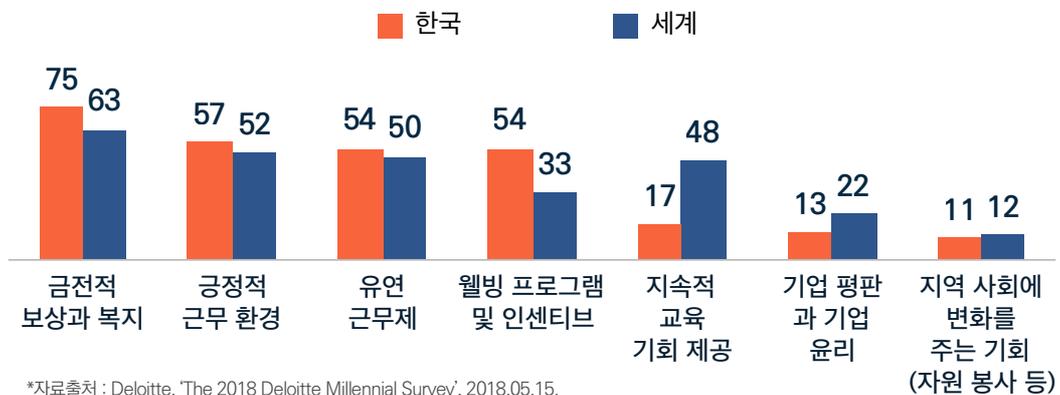


2

밀레니얼의 직장 선택 기준 10명 중 8명 정도는 ‘금전적 보상과 복지’

-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딜로이트가 전 세계 36개국 밀레니얼을 대상으로 직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한국 밀레니얼의 직장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금전적 보상과 복지’ 75%, ‘긍정적인 근무 환경’ 57%, ‘유연 근무제’ 54%, ‘웰빙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 세계 밀레니얼과 비교하면 한국 밀레니얼은 연봉과 인센티브, 근무 환경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기업 평판과 기업 윤리는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함

[그림]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인식의 변화(‘그렇다’ 비율, 한국 vs 세계)



*자료출처 : Deloitte, 'The 2018 Deloitte Millennial Survey', 2018.05.15.
(전 세계 36개국, 밀레니얼(1983~1994년생) 및 Z세대(1995~2002년생), 12299명, 한국은 313명, 대면 조사)

● 한국의 밀레니얼 직장인, ‘미래 불안’과 ‘현재 불만’ 공존함

- 한국의 밀레니얼 직장인의 절반 이상(52%)이 ‘2년 이내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1년 전 42%에서 무려 10% 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반면, ‘5년 뒤에도 잔류할 것’에는 2018년(27%) 보다 높아진 32%로 나타남. 이처럼 상반된 양상을 보인 이유는 낮은 고용의 질과 불안정한 구직 형태에 대한 불만으로 2년 내 퇴사 의향은 늘어난 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현 직장을 유지하고 싶은 인식이 상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림] 한국 밀레니얼 세대의 현 직장 퇴사 및 잔류 의사(2018 vs 2019) (%)



*자료출처 : Deloitte, 'The Deloitte Global Millennial Survey 2019', 2019.05.21.

(전 세계 42개국, 밀레니얼(1983~1994년생) 및 Z세대(1995~2002년생), 116425명, 한국은 302명, 대면 조사)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전염병 시대의 손 씻기 통계](#)

조선일보_2020.02.15

“손 씻기 위력”



[2019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_2020.02.20

“국회 신뢰도 ‘꼴찌’…국민 이념성향 보수↑·진보↓”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앙일보_2020.02.18

“탈북민 월평균 소득 200만원 넘어…생활만족도 74%”



[임금격차 실태 : 남녀간, 업종간, 연령간](#)

중앙일보_2020.02.19

“중년 남성 연봉, 여성의 두 배…대학 나와도 뚜렷한 남녀 격차”



[연도별 퇴직자 실태](#)

매일경제_2020.02.16

“4050 비자발적 퇴직자 5년새 최대”



[한국인의 환경문제 인식 수준](#)

세계일보_2020.02.18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운동화 사 신으니 자부심 생겨요”



[글로벌리더 호감도 순위는?](#)

폴리뉴스_2020.02.17

“글로벌리더 호감도 ‘프란치스코 교황-獨메르켈-佛마크롱’ 순”

스토리가 있는 기사



[때로는 침묵이 금이다 ; 말의 영향](#)

동아일보_2020.02.19

“말의 홍수 시대”



[트렌드 : 트로트 열풍](#)

주간조선_2020.02.17

“OTT 시대 트로트의 반격”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